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6 년 7 월 8 일 현지 시간 04:20,
브라질, 상파울루 성 조셉집에서
마리아 세실리아, M. 도미틸라 도스 산토스 수녀님이
81 세(수도생활 61 년)로 세상에서 생을 마감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세실리아 수녀님의 삶을 잘 표현해 줍니다. 충실한 빠스또렐라였던 세실리아 수녀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아오셨고, 이제 성부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영원히 뵈게 되셨습니다.

마리아 체칠리아 수녀님은 1945 년 3 월 28 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안가투바(Angatuba)에서 태어나셨으며, 같은 해 4 월 17 일 안가투바의 성령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57 년 2 월 2 일 상파울루 자바과라(Jabaquara) 공동체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셨고, 1964 년 2 월 1 일 카시아스 두 술(Caxias do Sul) 산 레오폴도(São Leopoldo)에서 수련을 시작하셨습니다. 1965 년 2 월 2 일 첫 서원을 하시며 마리아 도미틸라(Maria Domitila)라는 수도명을 받으셨고, 1971 년 1 월 1 일 상파울루 자르딤 길다 마리아(Jardim Gilda Maria)에서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세실리아 수녀님은 자신의 성소와 수도회를 깊이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소박하고 너그러우며 용기 있고 언제나 기쁘게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셨고, 자연을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어떤 책임이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기쁘게 수행하셨으며,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맡은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수녀님의 사도직은 주로 가정사목, 평신도 사목자 양성, ‘디비나 파스토라(Divina Pastora)’ 초등학교의 재정 담당, 성소사목, 그리고 보건·의료 사목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65 년 상파울루 자바과라(IDP)를 시작으로, 센테나리우 두 술(Centenário do Sul), 자르딤 길다 마리아, 산타나 두 아라과이아(Santana do Araguaia), 하파르드(Rafard), 알투 다 라파(Alto da

Lapa), 브라질리아(Brasília), 벨루 오리존치 리베이랑 다스 네베스(Belo Horizonte – Ribeirão das Neves), 빌라 칼리포르니아(Vila Califórnia), 상조제의 집(Casa São José), 엘도라도(Eldorado), 그리고 로마 총원(Casa Generalizia) 등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셨습니다. 2023 년부터는 상파울루 상조제의 집(Casa São José)에서 병환에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지내셨습니다.

병상에서 세실리아 수녀님을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 주신 자매들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 또한 수녀님의 환한 미소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세실리아 수녀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실리아 수녀님은 언제나 매우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이 수녀님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선뜻 맡으셨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녀님은 이론보다 실천이 앞서는 분이셨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를 품어 주셨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계시든 수녀님은 깊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공동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와 도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용감하게 도전을 받아들이셨으며, 수도회를 사랑했고 pastorella 로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총원 공동체에서 세실리아 수녀님은 자매들과 방문객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를 보여 주는 분이셨습니다. 수녀님의 믿음과 너그러움, 수도회에 대한 깊은 사랑의 증거는 총원 공동체의 환대 봉사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실리아 수녀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녀님을 성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리며, 하늘에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훌륭한 성소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7 월 8 일, 이탈리아 로마 아리차 디비노 마에스트로의 집
성 아퀼라와 성녀 프리스킬라 부부 기념일